

[큐티상담칼럼 4] 묵상은 감정이 넘쳐나는 ‘낭만’, ‘정열’

라채광 집사 / 2002

한 고등학생과 일대일양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잘 암송하고, 큐티도 비교적 성실히 했지만 막상 교재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윤리나 논리로 전개되는 성경의 원리가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귀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리나 이성보다 감정적으로 매듭짓는 것을 늘 보았던 것입니다.

숨은 정서와 감정의 세계

성경의 원리는 세상에 그대로 적용되어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조차 감정의 밑바탕이 흔들리면 묵상과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 학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집니다. 도덕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슬픔 또는 분노라는 정서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솔하게 경험합니다. 화가 난다고 처음 약속을 내팽개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으면 ‘억울하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는 것이 인간이지요. 자주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삶의 진실을 잘 깨달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낮은 자존감에 대한 분노 때문 일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치운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깨닫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분노한 형들이 한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로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청년 요셉의 그 살을 에이는 고통은 형들의 질투라는 감정과 비겁한 정서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이렇듯 정서와 감정의 세계를 무시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감정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묵상도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고는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레마’와 ‘로고스’

모든 묵상가들은 말씀이 ‘레마’와 ‘로고스’가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레마는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터득하는 고상한 체험의 결과입니다. 더구나 그 첫 반응이 정서적이라는 데 묘한 비밀이 있습니다. 묵상 초보자들은 순종 훈련과 더불어 감정을 여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한 간접체험이 정서의 문을 통해

먼저 찾아와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행간에 존재하는 감정의 흐름을 잘 따라 갈 수 있다면 그 묵상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성경 속에 주인공의 고통을 느낀다면 내 슬픔의 많은 것이 가라앉을 것이요, 주인공의 분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면 내 분노가 근원적으로 치유됩니다. 주인공의 기쁨과 찬양은 내 암담한 미래에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이셔서 지성과 감정을 모두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말씀도 분명히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정서가 안정되면 이성이 바른 눈을 뜨는 것은 당연합니다. 좋은 지성적 묵상은 아름다운 정서적 안정이라는 기초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경 곳곳에 총만한 감정의 에너지를 잘 이해한다면 묵상은 무척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은 감정이 넉넉히 넘쳐나는 낭만이며 정열입니다. 말씀에 내 감정이 젖어드는 뜨끈한 행복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적 삶과 묵상의 길이 비록십자가 앞에 자기를 던지는 결단이자 헌신이라도, 그 영혼 깊은 곳에 정서적 천국과 간절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6월 푸르른 계절에, 마음을 열고 감정 깊은 호흡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열어 보이며 새벽마다 임재하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내 심령에 닿기를 원합니다.

*** 출처 : 은누리신문**